

대한제국, 복식에 깃든 위엄

대한제국, 복식에 깃든 위엄

2017. 10. 16 ~ 2018. 2. 28

전시장소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內)

주 최 경운회

전시주관 관장 장경수

책임기획 부관장 박경자

기획진행 학예연구원 김윤희 박상진

도록편집 배방훈 이계호 호원숙 김혜정

진행 손창욱 이경희 전명애 구복순 김용정 이미영 임연옥 배현령

이정희 한소영 김명희 이영희 전경숙 김귀란 김혜진 오현옥

정순은 강영서 김현순 이해원 공희숙 김선희 이경순 이숙명

최의려 민승옥 이은경 최은순 김종민

사 진 서현강

도록디자인·제작 디자인이즈 designiz.net

발행인 장경수

발행처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06324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9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內 경운박물관

tel. 02-3463-1336 fax. 02-3463-1331

www.kwmuseum.org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은 경운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본 전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 기념

대한제국, 복식에 깃든 위엄

2017. 10. 16 ~ 2018. 2. 28

황제의 권위와 위엄이 가득한 12장 면복

장경수 경운박물관장

2017년은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이 되는 해로 곳곳에서 많은 행사와 함께 대한제국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모가 시해당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하면서 절치부심하던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환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로 등극하신 그 자리에서 황제의 권위와 위엄을 보였던 고종의 12장 면복을 경운박물관에서 이번 전시를 위해 재현하였습니다.

경운박물관은 이미 7년 전에 황후 복식인 순정효황후의 12등 적의를 재현한 바 있고, 학계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와 고증을 거듭해 황제의 12장 면복을 재현했습니다. 황후의 12등 적의와 달리 황제의 12장 면복의 경우는 실물이 현존하지 않고 사진과 글로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12장 면복 중 가장 위에 입는 상의 어깨에 놓인 해와 달의 문양 부분을 미완성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더 깊은 연구와 고증을 통해 의견을 모아보려 합니다.

2년 6개월의 긴 시간 끝에 완성된 황제의 12장 면복은 화려하지도 눈부시지도 않으나 그야말로 위엄만이 깃들어 있습니다. 12장 면복의 상의는 해와 달, 용과 화충 등을 새겨 황제의 신분에만 가능한 권위를 보여주고, 하상에는 호랑이와 원숭이, 찰과 도끼 등을 수놓아 국민에 대한 약속과 결의를 보여줍니다. 12류 면관은 12줄로 꿰어진 황, 적, 청, 백, 흑, 홍, 녹색의 구슬이 그 영롱함으로 눈부십니다.

이번 '대한제국, 복식에 깃든 위엄' 전에는 황제, 황후의 복식과 함께 500년을 이어온 왕실의 위엄이 깃든 의친왕비의 복식과 고종의 사촌이신 완순군의 복식도 같이 전시하여 화려하지만 사치하지 않았던 왕실의 기품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복식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합니다. 물밑듯 들어오는 개화의 물결로 이미 대한제국기 전후해서 여러 차례의 의제 개혁이 있었고 복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치, 교육, 문화 부분에서 변화하는 세대와 함께 했던 복식의 변화를 인물별로 살펴봅니다.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구군복과 서구식 신식 군복, 개화와 유길준 선생의 개량된 단령, 문관 대례복 제도에 따른 주임관 예복, 마지막 성리학자인 간재 전우의 상복형 일상복과 다양한 쓰개 등에서 역사적 인물들의 복식 변화 과정과 함께 주체적 개화를 위한 노력 및 애국에 대한 가치관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친왕, 영친왕비의 유품을 함께 대한제국 시대에 사용했던 오얏꽃(李花)이 새겨진 생활용품과 은제, 자기류, 서양식 식기와 식탁 기물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끝으로 고종황제의 어보, 어책을 대여해주신 국립고궁박물관, 충정공 민영환 복식과 유길준의 문화재급 복식을 대여해주신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귀국하여 이번 전시를 위해 친히 왕립해 주시고 세미나를 통해 후학들에게 마지막 황실의 추억을 전해주시는 이해경 왕손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고종의 사촌이신 완순군의 복식 및 영친왕, 영친왕비의 유품을 대여해 주시고 강건하고 기품있는 맹현가의 생활상을 전해주시는 완순군의 증손녀, 이남주 동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재 전우의 복식 일체를 기증해 주신 후손 전봉희 교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덕수궁 사진의 로비 전시를 허락해 주신 서헌강 작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차

대한제국	8
황실 복식	16
황제 복식 - 12장 면복	18
황후 복식 - 12등 적의	38
왕실 복식	50
의친왕비	52
맹현가	60
왕실 집기	70
대한제국 복식의 근대화	82
간재 전우 良齋 田愚	84
충정공 민영환 忠正公 閔泳煥	98
유길준 兪吉濬	104
논문 / 최연우	110
대한제국 황제 12장 면복 冕服 고증	
12장 면복 재현작업 일지 / 박경자	136
유물 목록	138

대한제국 大韓帝國 1897년-19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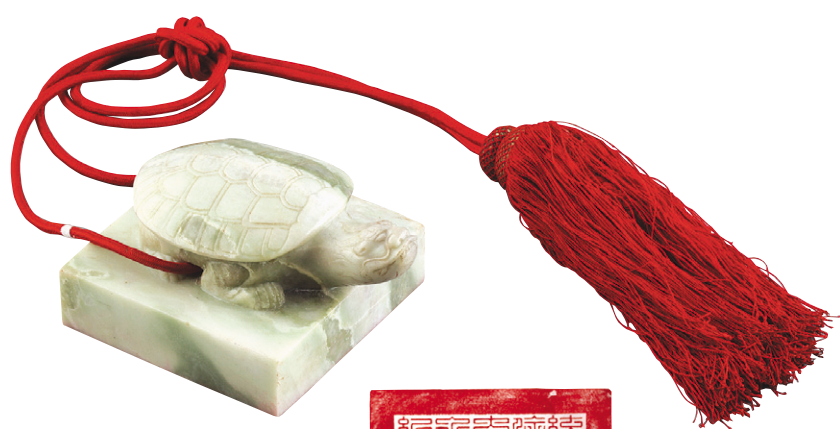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열강 틈에서 고종은 쇠락해가는 국가를 지켜내기 위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자주 독립 국가임을 국내와 세계에 다시 알리고자 하였다. 1897년 10월 12일 환구단에서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광무光武라는 새 연호를 사용하고 황제국에 걸맞게 제도를 정비하였다. 황제의 복식은 조선의 붉은색 왕의 복식에서 황제의 색상인 황금색으로 바뀌었고 각종 상징물과 의장물도 황금색으로 바뀌었다. 황실의 문장은 오얏꽃무늬로 태극기, 무궁화와 더불어 서양식 관복, 훈장, 공문서, 동전, 우표, 관용 식기 등에 사용되었다. 근대적 토지제도의 확립과 조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발급하였고, 경제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새로운 기술 수용과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편학당, 상공학교, 경성의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외국 여행을 허가하는 여권을 발급하여 세계화에 발맞추어 대한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의 점진적인 국권 침탈로 1910년 강제로 '한일합방조약' 을 체결하게 되어 대한제국은 13년의 짧은 제국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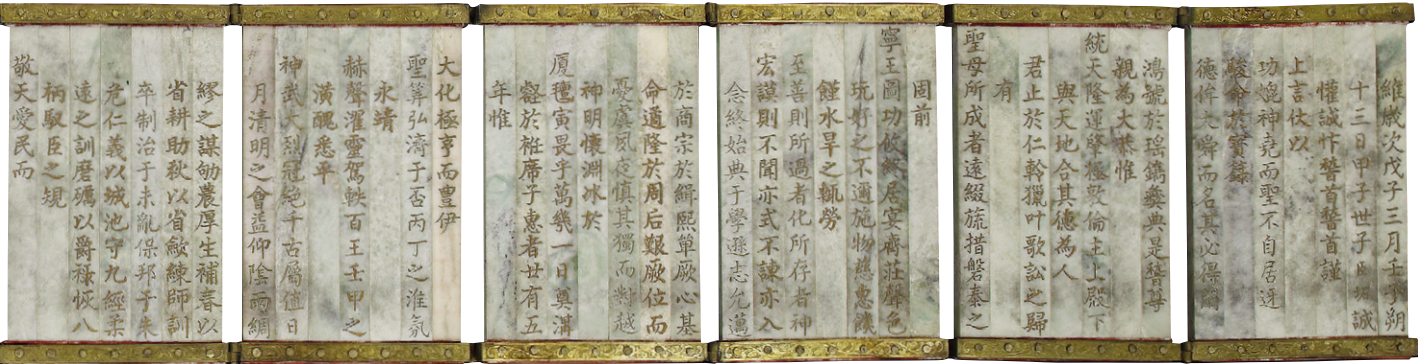
대한제국



고종 황제(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念切儉勤崇儒尊德而
 工臻格致作人達才之
 化朝有羊純野有亮置求賢
 如渴之
 心山無草帶林無皮禍所以
 日用間
 施措皆從天理中出來
 功烈譬如天大譬如天高曷
 敢曰盡管之窺測學譬莫
 非王臣莫非王土孰不願
 鴻藻之鋪張肆小子懷至
 切之誠矧我家有已行之
 典
 威德蕩蕩縱難萬分一粟微
 忱仰乎遂至三疏二啓幸
 曰
 淵衷之謙抑式表泥檢之貴
 崇謹奉
 冊寶加上
 尊號曰
 正聖光義明功大德
 德業休光大而化之謂聖
 義理純正明其道不計功伏
 惟丕受
 顯稱式行
 景祿金章玉簡亘百代而光
 華日升月恒
 膺萬年之壽祉臣垢誠謹誠
 上言
 忭誓首誓首





1 고종 가상존호 옥책 高宗 加上尊號 玉冊

Jade Investiture Book of Ex-Emperor

1888년

길이 204.7cm 세로 26cm

두께 1cm 폭 16.6cm 무게 15kg

고종 25년에 세자 책하(순종의 이름)이 고종에게

'정성광의 명공대덕 正聖光義 明功大德'이라는 존호를 추가하여 올리면서 제작한 옥책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 고종 가상존호 옥보 高宗 加上尊號 玉寶

Royal Seal of Ex-Emperor

1892년

전체높이 7.7cm

보뉴(寶鈕) 가로 8cm 세로 13.9cm 높이 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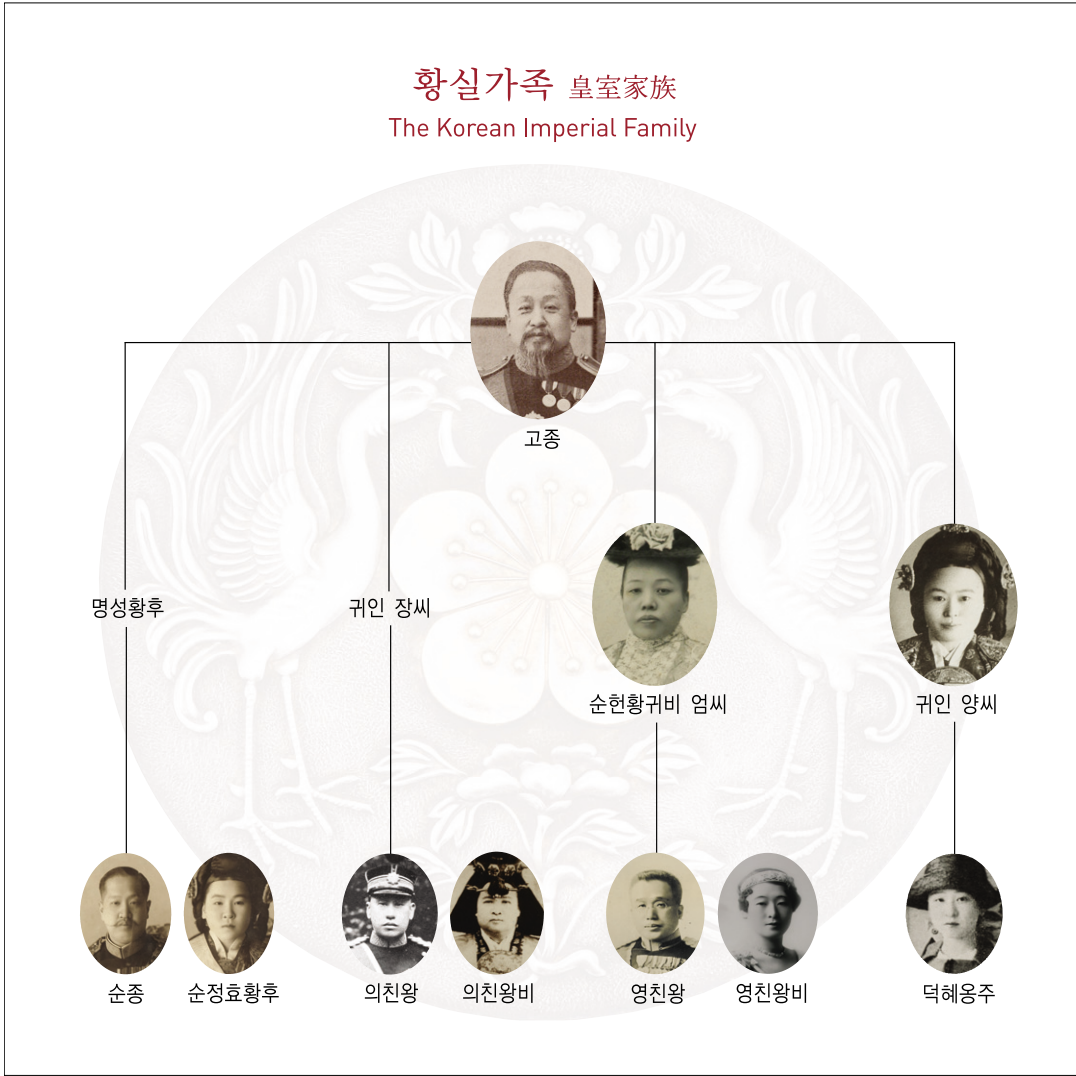
보신(寶身) 가로 11.5cm 세로 11.5cm 높이 3.2cm

보수(寶綬) 길이 91.5cm 무게 1.83kg

고종 29년에 '응명입기 지화신열 應命立紀 至化神烈'이란 존호를 올리면서 만든 고종의 어보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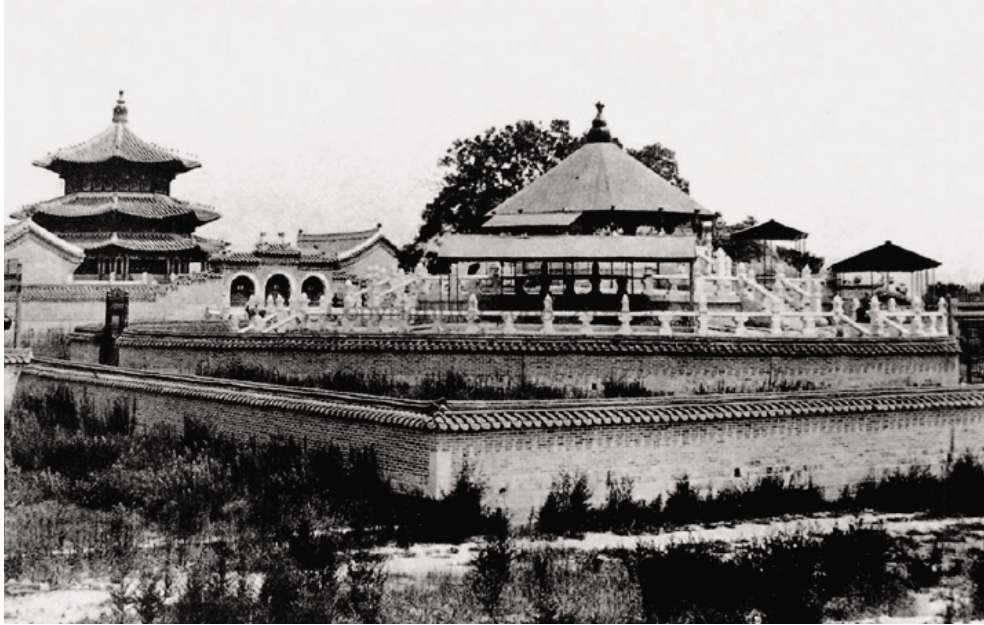
황실가족 皇室家族
The Korean Imperial Family



국립고궁박물관 자료 제공



왼쪽부터 영친왕, 순종, 고종, 순정효황후, 덕혜옹주(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환구단 圜丘壇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원구단(圜丘壇)이라고도 한다. 이 자리에는 조선 후기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남별궁이 있었는데, 고종이 1897년(광무 원년)에 황제에 즉위하면서 제국의 예법에 맞추어 환구단을 건설하였다. 환구단은 제사를 지내는 3층의 원형 제단과 하늘신의 위패를 모시는 3층 팔각 건물인 황궁우(皇穹宇), 석고(石鼓), 문 등으로 되어 있다. 환구단은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상징적 시설로서 당시 고종황제가 머물던 경운궁(현재의 덕수궁)과 마주보는 자리에 지어졌다.



3 · 4 상준 象尊, 회준 犧尊

높이 16.5cm 너비 27.5cm

5 · 6 운점 雲玷, 보 篚

높이 19.2cm 너비 45.3cm 전체높이 24.8cm

7 · 8 황이 · 황이대 黃彝 · 黃彝臺, 가이 · 가이대 鬯彝 · 鬯彝臺

높이 21cm 너비 31.5cm

종묘제기

준은 신에게 술을 바치는 헌작獻爵 절차에 쓰이는 술을 담은 향아리이다.

상준은 코끼리 모양의 술동이, 회준은 소 모양의 술동으로 봄 · 여름 제사에 사용되었다. 몸체에 뚜껑을 덮어 몸통에 술을 보관한다.

운점 雲玷은 상준 · 회준과 같은 준을 올리는 받침대로 구름 모양의 장식이 양쪽에 달려 있다.

보 篚는 곡식을 담아 제사의 가운데에 올리는 사각형 제기이다. 몸체 전면에 수파문 · 뇌문 등의 기하학적 무늬와 귀면을 장식하였다.

쌀과 수수를 담아 신위 한 위당 한 쌍씩 올렸다.

이 彝는 정전과 영녕전 신실 문 밖에 진설되는 준소상에 올린 술향아리 유형이다. 황이는 청명한 기운을 상징하는 황금 눈을 새긴

술동이, 가이는 가을에 추수하는 벼이삭을 새긴 술동으로 몸체의 양 옆에 손잡이 달린 형태이다. 주로 가을 · 겨울 제사에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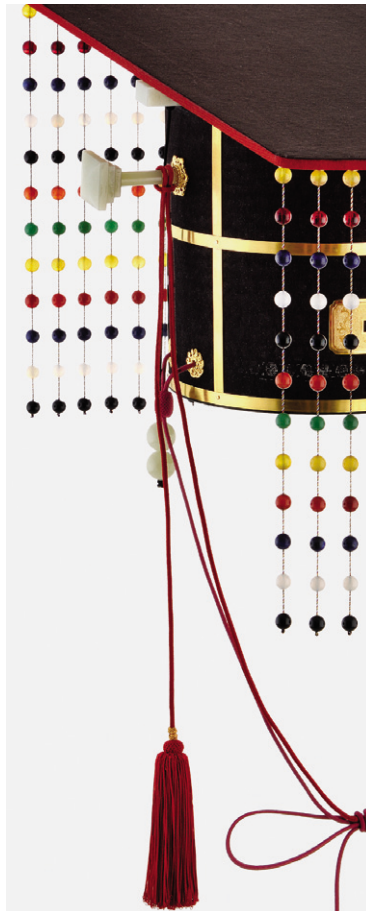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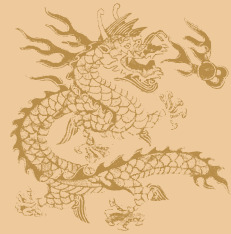


황실 복식

황제 복식 - 12장 면복

황후 복식 - 12등 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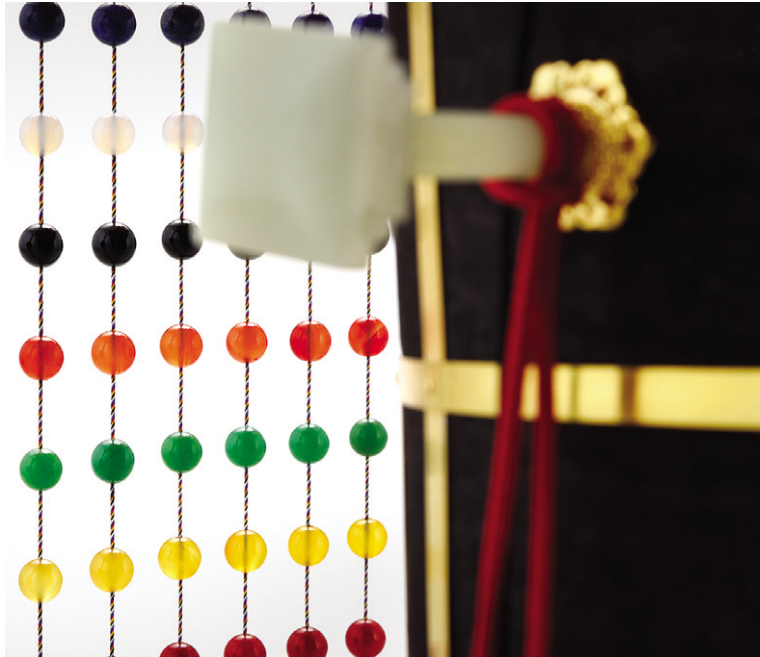
황제 복식 12장 면복

1897년 10월 12일(음력 9월 17일)의 대한제국 개국은 한국복식사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된다. 중국을 황제국으로 인정하면서 제후국의 복제服制를 적용했던 조선과 달리 명실상부한 황제국 복제를 규정, 시행하기 때문이다. 황제국 복제의 정점에는 황제가 착용하는 12장 면복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이 잠깐 착용했었고, 고종이 황제 신분으로 착용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면복冕服’은 한·漢의 정현鄭玄이 『주례周禮』 「대행인대行人」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면관과 그에 따르는 복식 일습一襲(冕服, 著冕所服之衣也)’을 의미한다. 구성품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면관冕冠, 상의上衣, 하상下裳, 중단中單, 혁대革帶, 대대大帶, 폐슬蔽膝, 패옥佩玉, 수綬, 방심곡령方心曲領, 버선襪, 석鳥, 규圭 등이다. 면관에는 류旒가 드리워져 있고, 상의와 하상에는 일日, 월月, 성신星辰, 산山, 용龍, 화충華蟲, 종이宗彝, 조藻, 화火, 분미粉米, 보鬪, 불黻 등 총 12종류의 무늬가 표현된다. 우리나라 면복은 이 류와 무늬의 수에 따라 12류 면관에 12장복, 9류 면관에 9장복, 8류 면관에 7장복, 7류 면관에 5장복으로 구분된다. 이 중 12류 면관에 12장복(이하 ‘12장면복’이라 함)은 12줄의 류를 드리우고 총 12종류의 무늬를 쓴다.



12장 면복을 착용한 순종(『순종실기』 최연우 개인소장)



9 12류 면관 十二旒 冕冠

Twelve Beads String Crown

대한제국

면관 너비 23cm 길이 46cm 높이 0.7cm

고종이 황제에 오른 광무 원년에 제정된 12류 면관은 황-적-청-백-흑-홍-녹색의 12옥을 꿰 12류가 달린 면관이다.

면관은 면관, 무, 양, 류, 비녀, 뉴, 총이로 이루어져 있다.

'면관'의 '면冕'은 '기울다'라는 의미로 전체적인 모양이 앞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무는 머리통을 감싸는 부분으로, 동그렇게 통 모양으로 만드는데 앞은 낮고 뒤는 1촌 정도 높다.

이 위에 면판을 얹으면 옆에서 봤을 때 관모가 앞으로 기울어진 모양이 된다.

무는 대나무를 가늘게 쪼갠 대나무줄(竹絲)을 교차시켜 망(網)의 모양으로 엮어서 머리통을 감쌀 수 있도록

동그렇게 틀을 만들고 검은 칠(漆)을 하고 검은 천으로 씌운다. '연(繩)'이라는 면판은 오동나무를 재료로 하고,

전원후방(前圓後方) 형태로 하여 길이 2척 4촌에 너비 1척 2촌으로 길이가 너비의 2배 정도이다.

면관에서 현색(玄色)은 하늘, 안의 훈색(纁色)은 땅을 상징한다.

재현품



10 상의 上衣

Outer Robe

대한제국

길이 119cm 화장 96.5cm 품 48cm

황제의 면복 중 가장 위에 입는 겹옷으로 어깨에 일월, 등에는 성신과 산, 소매에 용문과 구름 위의 화층의 6가지 문양을 석채로 그려 넣었다.

상의의 색은 면관의 겉과 같은 현색으로 현의玄衣라고도 한다.

중단의 아청색이 얼비쳐서 특별한 색을 이룬다. 현색은 천天和 양陽을 상징한다.

『대한예전』에 재료에 관하여 조선시대에는 증縲이나 초縲를 썼다는 기록이 있다.

본 재현 작업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9장복 유물 2점 중, 은조사로 된 9장복을 조사하여 재현하였다.

앞길과 뒷길이 발목 조금 위까지 이를 정도로 길고, 곧은 깃에 우임이며 동정과 고름을 달았다.

깃부터 도련에 이르는 가장자리와 소매 끝에는 길과 같은 색으로 가선을 둘렀다.

겨드랑이에는 옥대를 걸 수 있는 고리가 달려있다.

재현품







12장 면복 상의에 그려진 일·월·성신·산 무늬

12류 면관·12장 면복 재현작업 참여자

자문	최연우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전통복식연구소 소장
제작·총괄	박경자, 안인실 연우 침선연구소
12류 면관·패옥	김영희 무형문화재 경기 18호 옥장(장신구)
12장문 채화	김도래 북촌 불교미술보존연구소
후수·망수	임금희 임금희 다회·망수연구소
폐슬	신찬순
하상	이영희 60회
적석	안해표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7호 화해장
대대용 직물·청조	이지원 뽕 짜는 집
직물 제직	임영우 대신직물
직물 염색	진주 남양염직
견본 현·훈 아청 전통염색 및 자문	이종남 이종남 전통염색연구소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유물재현팀

공희숙, 김귀란, 김윤희, 김종민, 이경순, 이숙명, 이해원, 전경숙

인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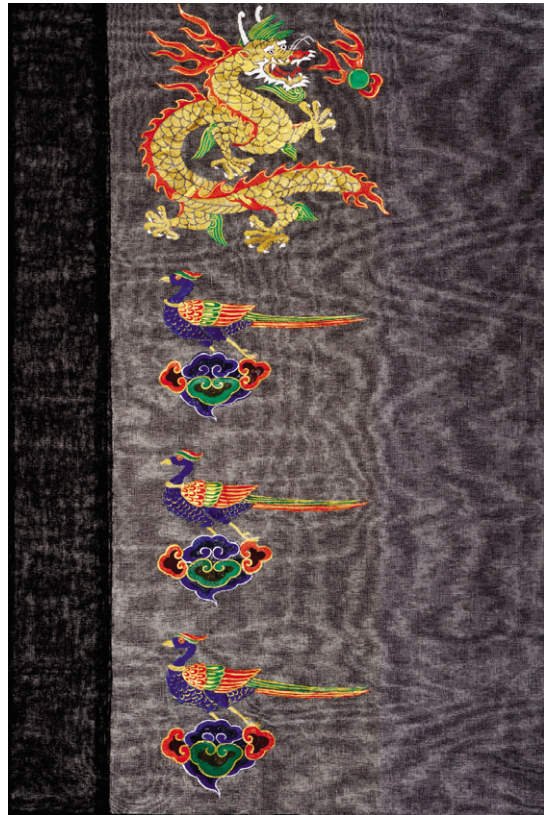
전윤숙, 안형신, 한유진

후원

12류 면관	송광자 50회
직물 제직	김영임 46회
후수	박현주 59회
패옥	이주영 59회
적석	송원숙



12장 면복 소매에 그려진 용, 구름 위의 화충 무늬 (소매 뒷면)



(소매 앞면)

11 중단 中單

Inner Robe

대한제국

길이 124cm 확장 96.5cm 품 48cm

12장 면복의 상의 안에 입는 받침옷이다.

옷감은 상의와 같은 은조사銀造紗로 아청색 깃부터 도련에 이르는 가장자리와 소매 끝에는 상의와 같이 현색으로 가선을 돌렸다.

고름도 현색으로 달았다. 끈은 깃에 동정이 없고, 고름이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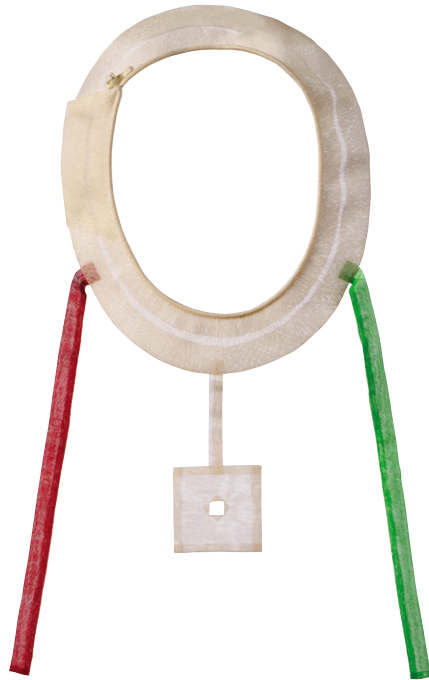
어깨와 겨드랑이에 바대를 대고 소매가 넓다.

깃에는 금분으로 13개의 불문齣紋을 그렸다.

크기는 상의 보다 전체적으로 0.5cm 작게 하였다.

재현품





12 방심곡령 方心曲領

Round Shaped Neck Band with Squared Decoration
대한제국

전체길이 46cm 곡령너비 4.5cm 방심 6.5cm 끈길이 30.3cm
방심곡령은 제례시 면복 위에 착용하며 위쪽의 곡령曲領 부분과
그 아래의 방심方心 부분으로 나뉜다.

곡령은 하늘, 방심은 땅으로 천지와 음양의 조화를 의미한다.
곡령의 양 옆에는 끈을 다는데, 착용했을 때 왼쪽은 녹색이고
오른쪽은 홍색이다. 오른쪽 어깨의 매듭단추로 여민다.

재현품



13 폐슬 蔽膝

Ceremonial Apron

대한제국

길이 72cm 윗너비 32.3cm 아랫너비 37.5cm

폐슬은 대대의 광다화에 걸쳐 무릎을 가리기 위하여 아래로

늘어뜨리는 면복의 한 구성요소이다. 폐슬의 재료와 색은 하상과 같다.

형태는 사다리꼴이고, 상하좌우의 사방에는 몸판과 같은 색의 가선을

댄다는 기록이 있으나 효명세자 예진에 표현된 폐슬에는

가선이 없어 가선을 덧대는 자리에 후수와 같은 6색의 채조대만 들렀다.

재현품

		
일(日)	월(月)	성신(星辰)
		
산(山)	용(龍)	화충(華蟲)
		
종이(宗彝)	조(藻)	화(火)
		
분미(粉米)	보(黼)	하상용 중단용 불(黻)

12장문 十二章紋

황제의 면복에는 열두가지의 문양을 시문하여 이를 12장문이라고 한다.

12장문은 주로 자연과 동물에서 소재를 구하여 형상화 하였으며 황제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상징한다.

일(日)·월(月) : 하늘의 해와 달로서 천지만물의 운행을 상징한다.

성신(星辰) : 5개의 별로 표현되며 제왕은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을 알려주고

백성은 이로써 절기를 파악하게 되니 모든 일상이 시간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산문(山紋) : 삼각의 산모양을 담아 움직이지 않는 제왕의 진정鎮定과 높이 우러러 보는 숭배의 대상을 상징한다.

용(龍) : 상상의 동물로 황제와 황후를 상징하며 비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짐으로 농경시대에 제왕의 힘의 원천을 뜻한다.

화충(華蟲) : 평을 말하며 깃털이 아름다워 절의節義와 부부의 해로偕老를 나타낸다.

종이(宗彝) : 종묘제향에 쓰이는 술잔을 의미하며 호랑이는 엄격함과 웅맹함, 원숭이는 지혜로움을 상징한다.

화(火) : 불의 형상으로 밝은 덕을 상징한다.

조(藻) : 수초를 상징하며 청결과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분미(粉米) : 쌀이며 황제는 백성을 위하고 보양保養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黼) : 도끼 모양의 문양으로 황제의 강하고 엄한 결단을 상징한다.

불문(黻紋) : 아자문亞子紋을 좌우로 배열한 문양인데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는 의미이다.



14 하상 下裳

Ceremonial Skirt

대한제국

허리둘레 91cm 벽 너비 7cm

전상 윗너비 38.9cm 아랫너비 82cm

후상 윗너비 47.2cm 아랫너비 105cm

하상은 중단 위에 입는 예복치마의 하나로 전상 3폭과 후상 4폭이 분리된 형태이며 하나의 허리에 연결되어 끈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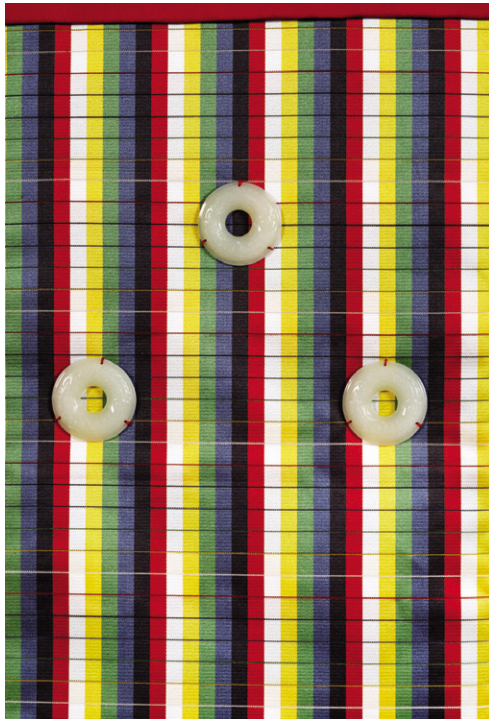
전상에는 종이宗彝, 화火, 조藻, 분미粉米, 보繡, 불蔽의 6가지 무늬를 각각 2개씩을 자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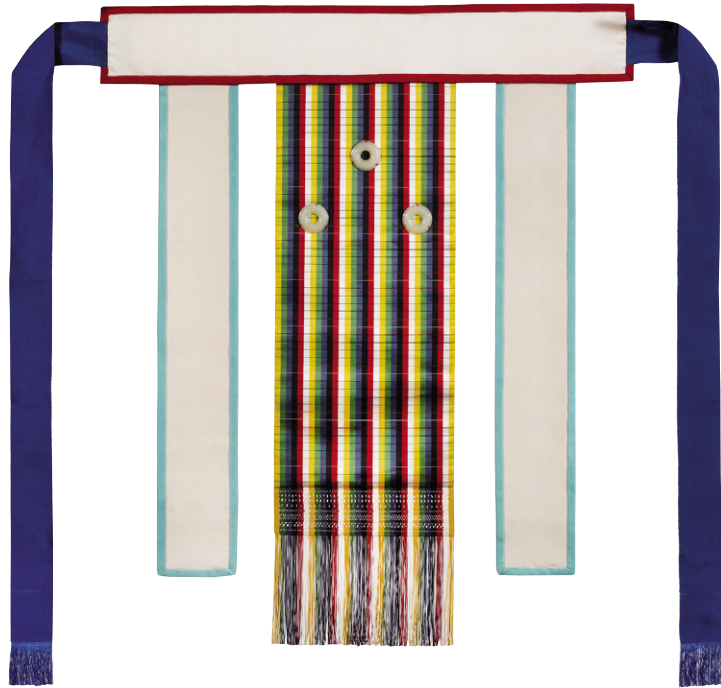
하상의 재료는 은조사로 상의와 동일하다.

하상의 양쪽 옆과 아랫자락에는 가선을 둘렀다.

옆에 있는 가선은 '벽緋', 아랫자락의 가선은 '석緋'이라 했다.

재현품





15 대대 · 후수 大帶 · 後綬

Ceremonial Belt and Back Drapery

대한제국

대대 요, 신 길이 75cm 너비 11cm

청조길이 99.5cm 청조너비 6.5cm 청조 술 길이 6.8cm

후수 전체길이 77cm 6색 수자직 55cm 망수 7cm 술 15cm 너비 25cm

대대는 12장 면복을 착용 후 뒤 부분을 장식하는 허리띠의 일종이다.

허리에 두르는 부분을 요縵, 아래로 늘어뜨리는 부분은 신紳이라 한다.

황제 면복의 수綬는 황-백-적-현-표-녹의 6색으로 하고 세로 줄무늬가 있게 하되, 6색을 오른쪽부터 5번 반복하고 마지막에 황색을 한 번 더 반복하여 총 31가닥이다.

아래에 망을 짠 후 나머지 실은 아래로 늘어뜨린다.

영친왕비 유물과 중국 역대 황제의 제도를 참고하여 환圓의 재료는 옥으로 하고,

명대의 제도에 근거해 3개를 썼다.

수는 본래 대대와 분리된 구성품이지만, 대한제국시대에 착장의 편의를 위해

수를 대대에 고정된 것이 유물에서 확인되므로 복원에서 이를 따랐다.

재현품



16 패옥 佩玉

Jade Ornament on Each Side

대한제국

전체길이 79.5cm

패대 전체길이 74.8cm 패대너비 10.4cm

6색 수자직 60.3cm 망 5.2cm 술 9.3cm

패옥은 조복이나 제복을 입을 때 옆에 늘어뜨리는 장식품으로 서로 다른 형태로 된 여러 개의 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위에는 형衡이 있고, 그 아래에 우瓊와 거踞, 옥화玉花와 옥적玉滴이 있으며, 맨 아래에 충아衝牙와 황瓚이 작은 구슬들로 연결되어 있다.

패옥에는 '소수小綬'라 부르는 받침('패대' 라고도 함)이 있다.

12장 면복의 소수는 수纒와 같이 오른쪽으로부터 황-백-적-현-표-녹의 6색을 두 번 반복하여 총 12가닥으로 하였다. 『대한예전』에서는 옥에 운룡문雲龍文을 새기도록 규정했지만, 순종황제의 패옥에는 무늬가 없다.

재현품



12장 면복 착장 모습(그림·설영자 59회)



17 적말 赤襪

Red Socks for Emperor

대한제국

전체 길이 36.6cm 버선목 19.4cm 끈 길이 46.6cm
 버선은 『대한예전』의 규정과 같이 주색朱色으로 하였고
 모양은 영친왕비의 버선 유물을 근거하여
 부리 뒤쪽을 트고 그 끝에 2가닥의 끈을 달았다.

재현품

18 적석 赤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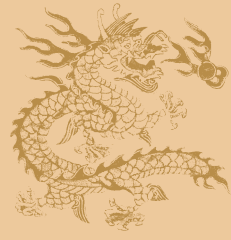
Red Shoes for Emperor

대한제국

전체길이 26cm 끈 길이 96cm

적은 면복과 조복에 착용하였으며 혜鞋의 형태로
 『대한예전』의 규정과 유물을 참고하여
 신을 적색으로 하고, 황색 사뜨기로 가선을 둘러쌌다.
 신목에 붉은 색 끈을 달고, 현색 술을 달았다.

재현품



황후 복식
12등 적의



순종비 순정효황후(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9 황후 적의 皇后 翟衣

Ceremonial Robe for Empress

20세기 초

길이 151cm 확장 105cm 품 52cm

적의翟衣는 왕비, 세자빈, 대비 등 왕실의 적통을 잇는 여인들만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예복으로서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복이다. 적의는 의복의 명칭인 동시에 대례복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왕·왕세자의 면복冕服에 대응하는 옷이어서 법복法服이라고도 불렀다. 전시된 적의는 경기여고 개교 100주년(2008년)을

기념하여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에서 세종대학교에 소장된 순정효황후 윤씨의 적의를 재현한 것으로

영친왕의 기미년(1919) 가례 시 조현례朝見禮를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청색 공단貢緞 바탕에 적문翟紋이

12줄로 직성되어 있으며 적문 사이에 오얏꽃(梨花)이 함께 직성되어 있는 홀옷이다.

깃부분과 도련, 수구에는 홍단紅緞에 용과 구름을 직금으로 제작한 직금운용문織金雲龍紋이 둘러져 있으며

사이사이에 불꽃을 상징하는 화염문火焰紋이 장식되어 있다. 가슴과 등 양어깨에 달려 있는 보는 발톱이 다섯 개인

오조룡문五爪龍紋을 보문, 수파문과 함께 금사로 수를 놓았다.

재현품





20 하피 霞帔

Decorative Sash

대한제국

길이 498cm 너비 11.2cm

적의 착장 후 어깨에 걸쳐 앞뒤로 드리우는

적의의 한 구성요소이다.

검정색 5매 주자직이며 적계문翟鷄紋과

운문雲紋이 부금되어 있고

어깨선을 중심으로 문양이 대칭을 이룬다.

재현품





21 페슬 蔽膝

Ceremonial Apron

대한제국

길이 55.3cm 폭_上 27cm 폭_下 33cm

페슬은 허리 아래로 드리워 무릎을 가리고 공경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장식적인 면복의 한 구성 요소이다.

직물과 문양은 적의와 같다.

대대에 걸 수 있도록 상단 좌우에 쇠고리를 달았다.

재현품



마리삭댕기

22 대수머리 수식 大首 首飾

Various Hairpins Suited with the Big Wig

20세기 초

대봉잠 24.2cm 장잠 32cm 선봉잠 19.8cm

나비잠 8cm 가란잠 30.5cm 원잠 12cm

마리삭댕기 73.7cm 용잠 16.5, 27cm

진주잠 10cm 후봉잠 24.5, 34cm

대수머리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대례大禮를 행할 때 왕비가 갖추는 가채加髻 의 하나이다. 전체적인 머리 형태를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 여러 개의 비녀, 뿔잠, 마리삭댕기 등으로 장식하여

직접 머리에 쓰도록 만든 가발로 수식품이 다양하고 매우 화려하다.

대수머리에 사용되는 수식으로 장잠, 가란잠, 용잠(대룡잠, 소룡잠), 원잠, 후봉잠, 진주잠, 나비잠, 옥선봉잠, 선봉잠, 마리삭댕기 등이 있다.

재현품





23 대대 · 후수 大帶 · 後綬

Ceremonial Belt and Back Drapery

대한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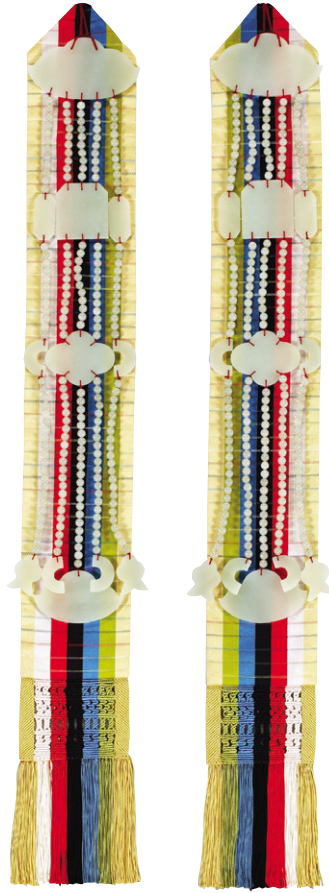
대대길이 75cm 너비 10cm

후수길이 83cm 너비 23.2cm

대대는 적의 착용 후 뒤 부분을 장식하는 허리띠의 일종이다.

허리에 두르는 부분인 요褙와 두 자락 신으로 구성되며 광다회로 앞에서 묶는다. 신과 신 사이는 후수를 늘린다.

재현품



24 패옥 佩玉

Jade Ornament on Each Side

대한제국

길이 77cm 너비 9cm

예복을 입을 때 양 옆에 늘이는 장식품이다.

형, 우, 거, 총아, 황, 옥적 등 여러 형태의

옥과 구슬로 연결하여 패대 위에 올렸다.

걸을 때마다 장식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낸다.

재현품



25 청말 靑襪

Blue Socks for Empress

대한제국

길이 34.6cm 버선목 19.4cm

끈 길이 44.3cm

청색 공단을 사용하였고 부리 뒤쪽을 트고
끝에 두 가닥의 끈을 달았다.

재현품



26 청식 靑舄

Blue Shoes for Em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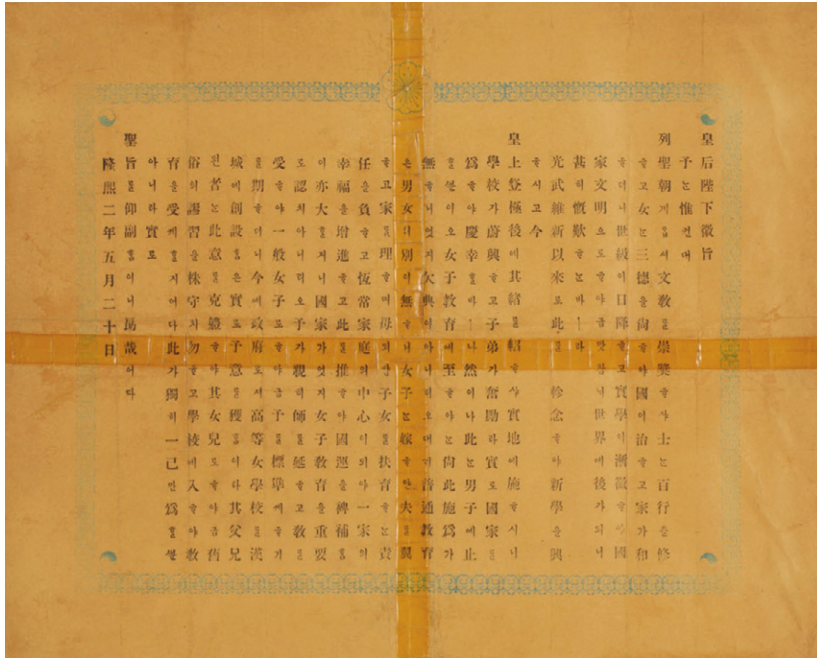
대한제국

길이 24.7cm

끈 길이 76.5cm

혜혜 형태의 의례용 신으로 적의와 함께 신었다.
신을 청색 비단으로 하고 신목에 청색 끈을 달았다.

재현품



나는 생각하건대 역대 임금께서 문교를 숭상 장려하시어 백행을 뒤고 여자는 삼덕을 숭상하여 나라가 평화롭고 가정이 화목하더니 세습이 날로 강쇠하고 실학이 점차로 미약해져서 우리나라의 문명이 마침내 세계에서 후진하게 되었으니 심히 개탄하는 바이니라 광무유신 이래로 이를 마음 아파하여 신학을 일으키시고 이제 황제 등극 후에 그 성지를 이어받아 실지로 시행하시니 학교가 성하게 일어나고 자녀가 분려하니 실로 국가를 위하여 경하할 바이나 이는 남자에 그칠 뿐이요 여자교육에 이르러서는 아직도 그 시행이 없으니 어찌 결전이 아니겠는가 대개 보통교육은 남녀의 구별이 없으니 여자는 출가하여 남편을 돕고 가정을 다스리며 어머니가 되어서는 자녀를 부육하는 책임을 지고 항상 가정의 중심이 되어 일가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를 추진하여 국운을 비호함이 또한 클지니 국가가 어찌 여자교육을 중요시 하지 않겠는가 내가 친히 스승을 맞아 교육을 받았으며 일반여자로 하여금 나를 표준케 하기를 기하더니 이제 정부가 고등여학교를 한성에 창설함은 실로 나의 뜻을 이룸이라 그 부형된 사람은 이 뜻을 잘 이해하여 그 여아로 하여금 구습을 버리고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게 할지니라 이는 나 개인 한 몸만 위할 뿐이 아니라 실로 성지를 우려러 받들이니 모름지기 힘쓸지어다

융희 2년 5월 20일

27 순정효황후 휘지 純貞孝皇后 徽旨

Permission Letter of Empress for the Foundation of Kyunggi Girls' High School
1908년
가로 47cm 세로 38cm

의친왕義親王은 고종황제의 다섯째 아들이다. 의친왕이 보빙대사, 특파대사로 파견되고 미국 유학, 항일 운동을 하는 사이 의친왕비는 사동궁에서 검소한 생활을 하며 왕실 법도를 지켜냈다. 의친왕의 다섯째 따님인 이해경 동문(36회)은 의친왕비가 물려주신 원삼과 족두리, 어릴 때 사용하던 땡기와 노리개 등을 2003년 경운박물관의 개관을 축하하며 기증해 주셨다. 나라가 어려울 때라 사치를 꺼려 의복에 순금을 쓰지 않도록 하여 원삼에도 동이 섞인 금박을 썼다. 맹현은 완순군完順君 집안의 택호로 가회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완순군은 흥선대원군의 둘째 형님인 흥완군의 아드님으로 고종황제의 사촌이다. 맹현가는 왕가 친척의 중심지였고 왕실 귀빈들이 낙선재 다음으로 방문하는 곳이었다. 완순군의 백관 예복인 조복, 단령과 완순군의 손부되는 신계완 동문(22회)이 결혼 때 입었던 원삼 등이 전시되었다. 완순군의 증손녀인 이남주 동문(45회)의 소장품들이다.

왕실 복식

의친왕비

맹현가





의친왕비



의친왕비(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8 원삼 圓衫

Ceremonial Robe for Women

19세기 말

길이 146cm(뒤) 확장 114cm

원삼은 조선말기 궁중 여성과 사대부士大夫 부인의 대례복으로

신분에 따라 색과 금박의 문양을 달리하였다.

이 녹색원삼은 의친왕비가 입으셨던 원삼으로 길과 소매부분은 연두색 도류사桃榴紗로 만들고, 소매끝의 색동 부분은 홍색과 황색의 금선단金線段으로, 한삼은 소색 생고사生庫紗로 만들었다. 어깨와 도련에는 수복화문壽福花紋 금박을 찍었으며, 한삼에는 수자壽字 금박을 찍었다.





29 화관 花冠

Ceremonial Coronet

19세기 말

가로 9cm 세로 12.5cm

화관은 여성용 예모(禮帽)의 일종으로 관모 보다는 장식의 성격이 강하다.

이 화관은 의친왕비가 1945년까지 쓰셨던 것으로 정면에 회자문(回字紋) 옥판을 달아 꾸미고,

정수리에는 옥 봉황을 중심으로 산호·비취·진주 등으로 꾸몄다.

뒷면에는 비취모(翡翠毛)를 붙이고 진주를 달아 장식한 화관 금비녀 1쌍이 꽂혀 있다.



30 당의 唐衣

Ceremonial Jacket for Women

19세기 말

길이 86cm 화장 67cm

당의는 조선말기 궁중 여성과 사대부 부인이 저고리 위에 입은 소례복小禮服이다. 비빈妃嬪의 것은 금박金箔이나 직금織金으로 장식하였으나 사대부 부인의 것에는 장식하지 않았다. 이 녹색 당의는 의친왕비가 1945년까지 입으셨던 것으로 걸감은 연두 생고사生庫紗, 안감은 진분홍 생고사로 지었으며 어깨와 도련에는 봉황문 금박을 찍었다. 가슴과 양쪽 어깨에는 금사로 수놓은 오조룡보가 붙어 있다.

31 스란치마 膝欄赤巾

Ceremonial Skirt for Women

19세기 말

길이 105cm 폭 235cm

스란치마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입던 예복치마이다.

이 남색 스란치마는 의친왕의 5녀인 이해경 동문(36회)이 입었던 것으로 걸감은 남색 대화, 안감은 연보라색 자미사이며 무명 허리를 달았다.

밑단에는 봉황문 금박을 찍은 스란단을 붙였다.



의친왕의 5녀인 이해경 동문(36회), 1956년
화관을 쓰고 당의를 입고 있다.



32 새앙머리댕기 唐只

Hair Ribbon

19세기 말

길이 134.5cm 너비 5cm

이해경 동문이 사동궁에서 새앙머리에 달았던 댕기로 자색 비단에 국화문 금박을 찍고 양 끝에 진주장식을 달았다.



33 금원앙노리개 鴛鴦單作佩飾

Pendant with a Pair of Golden Birds Ornament

19세기 말

길이 30.5cm

이해경 동문이 돌복에 달았던 금 원앙 노리개로 금사를 정교하게 엮어 몸체를 만들고 청수리와 날개에는 비취모鬚翠毛를 입혀 원앙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